

# 대니엘 강, LPGA투어 시즌 개막전 우승

### 1년 5개월만에 정상 오르며 통산 6승째...박인비 8위로 마감 유명인 부문선 메이저리그 투수 출신 로 우승...소렌스탐 2위

교포 선수 대니엘 강(미국)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2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대니엘 강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61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대니엘 강은 2위 브룩 헨더슨(캐나다)을 3타 차로 따돌리고 투어 통산 6승째를 수확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2만5천 달러(약 2억6000만원)다.

대니엘 강은 2020년 8월 마라톤 클래식 이후 1년 5개월 만에 투어 대회 정상에 다시 올랐다.

박인비(34)는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3라운드까지 1타 차 단독 선두였던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는 이날 3타를 잃고 10언더파 278타, 공동 4위로 밀렸다.

대니엘 강은 딱 1년 전인 지난해 개막전 연장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낸 우승이 됐다.

대니엘 강은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대회 기간 내내 선두를 지키다가 4라운드 16번 홀에서 제시카 코다(미국)에게 동타를 허용, 연장전을 벌인

끝에 2위로 대회를 마쳤다.

18번 홀(파3) 연장에서도 대니엘 강이 코다보다 더 가까이 공을 붙였으나 9m 버디를 잡은 코다에게 결국 우승컵을 내줬다.

그러나 올해는 3라운드까지 지난해 개막전 챔피언 코다의 동생인 넬리 코다에 1타 뒤진 2위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해 역전 우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3라운드까지 1타 차 선두였던 코다가 10번 홀(파4)까지 2타를 잃어 우승 경쟁에서 밀려난 반면 3라운드까지 공동 2위였던 대니엘 강과 가비 로페스(멕시코)가 우승 경쟁을 벌였다.

로페스가 먼저 5~7번 홀 3연속 버디로 치고 나갔으나 이후로는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대니엘 강은 9번과 11번 홀 버디로 추격에 나섰다.

대니엘 강은 13, 14, 15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순식간에 단독 1위로 뒤쳐나갔고, 로페스는 13, 15번 홀에서 보기로 타수를 잃어 둘의 격차는 4타까지 벌어졌다.

16번 홀(파4)에서 약 5m 정도 보기 퍼트를 남겨놓는 위기를 맞았으나 보기로 잘 막아냈다. 이때도 2위와 격차가 4타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타를 잃었지만 여전히 3타 차를 유지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교포 선수 대니엘 강(왼쪽)이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8위에 오른 박인비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인 부문에서는 연장전에서 메이저리그 투수 출신 데릭 로(미국)와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성 대결'이 펼쳐졌다.

연장 첫 번째 홀에서 로가 약 7m 파 퍼트를 넣고, 소렌스탐은 그보다 짧은 퍼트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 승패가 정해졌다. /연합뉴스

## 김시우·임성재 공동 11위 PG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총상금 760만달러) 2연패를 노렸던 김시우(27)가 공동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시우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파72·711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1개 더볼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때렸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 단독 10위 폴 바르종(프랑스)에게 1타를 뒤져 공동 11위에 머물렀다.

전날까지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24위에 머물렀던 김시우는 4라운드에서 16번 홀(파5)까지 7타를 줄이며 공동 3위까지 올랐지만, 17번 홀(파3)에서 티샷을 묶어 빼뜨리는 실수로 더볼보기를 범해 대회 2연패 기회를 놓쳤다.

3라운드까지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31위였던 임성재(24)는 4라운드에서 버디 6개로 6언더파 66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김시우와 함께 공동 11위에 올랐다.

대회 우승은 23언더파 265타를 때린 허드슨 스태퍼드(미국)에게 돌아갔다.

3라운드까지 15언더파 201타로 공동 5위에 머물렀던 스와퍼드는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9개와 보기 3개로 8타를 줄여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경훈(31)은 6언더파 282타로 공동 63위, 노승열(31)은 4언더파 284타로 공동 67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차준환이 23일 에스토니아 탈린의 톤디라바 아이스 홀에서 열린 2022 ISU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새 역사 쓴 차준환... 피겨 4대륙선수권 우승

### 한국 남자 싱글 첫 메달 쾌거 총점 273.22점 '개인 최고'

한국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차준환은 23일 에스토니아 탈린의 톤디라바 아이스 홀에서 열린 2022 ISU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86.48점, 예술점수(PCS) 88.78점, 감점 1점으로 174.26점을 기록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점인 98.96점을 획득한 그는 총점 273.22점으로 일본의 도모노 가즈키(268.99점), 미우라 가오(251.07점)를 누르고 우승을 확정했다.

1999년부터 매년 열린 4대륙 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선수가 우승한 것은 물론, 메달을 획득한 것도 차준환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여자 싱글에서만 2009년 김연아(금메달), 2020년 유영(은메달)이 메달을 따냈고, 이번 2022년 대회에서 이해인(은메달), 김예림(동메달)이 3, 4번째로 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0년 서울 목동실내아이스링크에서 열린 4대

륙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고인 5위에 올랐던 차준환은 2년 만에 자신을 넘어섰다.

특히 총점 273.22점은 2020 4대륙대회에서 세운 자신의 종점 최고점(265.43점)을 7.79점이나 끌어올린 기록이다.

미국과 일본 등이 이번 대회에 2진급 선수를 파견하면서 내이션 첸(미국), 하뉴 유즈루(일본) 등 정상급 선수들이 불참하기는 했지만, 차준환은 완성도 높은 연기를 선보이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망을 더욱 밝혔다.

함께 대회에 나선 이시형(고려대)은 총점 7위(223.18점), 경재석(경희대)은 14위(187.97점)를 차지했다.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 첫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토루프를 뛰다 넘어져 언더로테이트드(under rotated·점프의 회전수가 90도 이상 180도 이하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을 받고 수행점수(GOE) 3.80점이 깎였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쿼드러플 살코와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처리해 실수를 만회했다.

이후 차준환은 플라이잉 카멜 스핀(레벨 4)과 스텝 시퀀스(레벨 3)를 수행하며 점차 안정감을 되찾았다.

트리플 악셀-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선 또 한 번 언더로테이트드 판정으로 GOE 1.17점이 깎였으나, 트리플 악셀, 트리플 러츠-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플립은 완벽하게 소화했다.

점프 과제를 마친 그는 코레오 시퀀스(레벨 1)에 이어 체인지 풋 시퀀스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텝을 모두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처리하며 상당히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차준환과 함께 올림픽 출전을 앞둔 이시형은 쇼트 프로그램에서 79.13점, 프리스케이팅에서 144.05점을 받았다.

이시형은 프리스케이팅 첫 점프인 쿼드러플 살코에서 크게 넘어졌고, 이후 트리플 러츠를 수행하다 또 한 차례 넘어져 연결 점프를 붙이지 못했다.

그는 후반부 트리플 플립에 트리플 토루프를 붙여 콤비네이션 점프를 완성하는 등 실수를 만회하기는 했으나 연기를 마친 얼굴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경재석은 쇼트 프로그램에서 63.78점, 프리스케이팅에서 124.19점을 받으며 쇼트와 프리, 총점에서 모두 ISU 공인 개인 최고 기록을 썼지만, 이날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다 넘어지는 등 여러 차례 실수가 나왔다. /연합뉴스

## 권순우 호주오픈테니스 남자복식 16강서 탈락

권순우(당진시청)가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7500만 호주달러·약 644억원) 남자 복식 16강에서 탈락했다.

마르코스 기론(미국)과 한 조로 출전한 권순우는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8일째 남자 복식 3회전에서 베슬리 콜로프(네덜란드)-닐 스킵스

키(영국) 조에 0-2(3-6 4-6)로 졌다.

한국 남자 선수로는 2005년 프랑수아송 이형택, 2018년 호주오픈 정현에 이어 세 번째로 메이저 대회 복식 16강에 진출한 권순우는 준준결승행 티켓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단식 랭킹은 권순우가 54위, 기론 66위로 현재

단식 랭킹이 없는 콜로프나 스킵스키에 비해 앞서지만 복식 순위에서는 21위 콜로프와 20위 스킵스키가 권순우(699위)나 기론(1169위)을 압도한다.

권순우는 이번 대회 단식 2회전 진출 상금 15만 4000 호주달러와 복식 3회전 진출 상금 6만5250 호주달러를 받고 올해 호주오픈을 마쳤다. 복식 상금은 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 권순우는 총 18만6625 호주달러, 한국 돈으로 1억6000만 원 정도의 상금 수입을 올렸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